간호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박 필 남

포항대학교 간호학과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Coping Type and Self-esteem between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Pil-Nam Park

Department of Nursing, Pohang College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coping type and self-esteem between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research design was descriptive study. **Methods:** A set of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as completed by 197 nursing college students, includ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life stress, stress coping type, self-esteem, and suicidal ideation. Data was analyzed using t-test, ANOVA, Scheffé's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for mediating effect by SPSS ver. 22. **Results:** The mean age was 20.9 years. The mean scores were 2.4, 3.6, and 1.7 out of 5 Likert scales for items of life stress, self-esteem, and suicidal ideation, respectively. The mean score for stress coping type was 2.36 out of 4 Likert scale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life stress related to tasks, life stress related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emotion-focused coping of stress coping type ($r=.537, p<.01$); while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suicidal ideation. emotional-focused coping of stress coping type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life stress related to tasks and suicidal ideation. Also, self-esteem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life stress related to tasks and suicidal ideation as well as between life stress related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uicidal ideation. **Conclusion:** Based on the finding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apply various program to stress coping skill and self-esteem in order to reduce suicidal idea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Key Words: Life stress, Suicidal ideation, Self-esteem, Nursing students, Stress coping typ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청소년 후기와 초기 성인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정체감 확립, 미래에 대한 계획과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

이다. 대학생들은 가정과 학교로부터 보호받던 청소년에서 책임, 의무, 사회적 적응을 요구받는 성인의 지위를 준비하기 위한 부담과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1].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고등학교 시절과는 다른 생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고등학교까지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영향 아래서 행동하다가 대학생이 되면서 갑자기 책임감을 가

Corresponding author: Pil-Nam Park

Department of Nursing, Pohang College, 60 Sindeok-ro, Heunghae-eup, Buk-gu, Pohang 37555, Korea.
Tel: +82-54-245-1322, Fax: +82-54-245-1330, E-mail: pnpark@pohang.ac.kr

Received: Nov 16, 2015 / Revised: Apr 5, 2016 / Accepted: Apr 17, 2016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지고 자율적인 행동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어 많은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거나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는 신체적, 심리적 부작용을 겪게 되고 그로인해 정신적 문제를 발생시켜 자살까지 이어지게 된다[2].

특히 간호대학생은 낯선 장소에서 실습을 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오는 스트레스나,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부담감, 많은 학업량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며[3]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과중한 교과과정, 엄격한 행동규범,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심리적 중압감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4].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가 자살과 관련된 변인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서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입증된 바 있으며[5], 선행연구[6-8]에서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과 정의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부정적인 심리적·행동적인 결과들을 경험하게 된다. 개인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안정에 결정적 영향을 받지만[9]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과 자아존중감에 따라서 자살생각의 정도는 달라진다. 스트레스 사건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사람은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자살생각을 많이 하고[8]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7,8].

이러한 결과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에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자아존중감이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매개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더구나 타 학과와 다른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있어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는 불충분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처방식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자의 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의 정도를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의 차이를 비교한다.
- 연구대상자의 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은 P시 일 대학 간호학과 1, 2,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편의추출 방법으로 선택하였고 총 217명의 대상자가 참여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20부를 제외하고 총 197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표본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적정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독립변수 5개, 중간효과크기 .15, 검정력 .80, 유의수준 .05로 하였을 때 최소 92명이 요구되었다. 대상자 탈락률 20%를 고려한 표본수는 115명이었으므로 대상자 수는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설문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대상자의 익명성, 연구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에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소요시간은 20~25분 정도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Chon과 Kim[10]이 개발한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Lee[6]가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Folkman과 Lazarus[11]가 개발하여 Kim[12]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3]가 개발하고 Jun[14]이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Reynolds[15]의 자살생각 척도를 Lee[6]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1) 생활 스트레스 척도

생활 스트레스는 Chon과 Kim[10]이 개발한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Lee[6]가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 내용은 2가지 영역의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당면과제 영역 27문항(학업문제 7문항, 경제문제 7문항, 취업문제 8문항, 가치관문제 5문항)과 대인관계 영역 23문항(동성친구 5문항, 이성친구 6문항, 가족관계 6문항, 교우관계 6문항)의 2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진다. 5점 리커트식 척도로 '전혀 받지 않음'(1점)~'매우 자주 받음'(5점)으로 총 점수 범위는 50~2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당면과제 영역 .72, 대인관계 영역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영역별 Cronbach's α 는 당면과제 영역과 대인관계영역 모두 .92로 나타났다.

2)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는 Folkman과 Lazarus[11]가 개발하여 Kim[12]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문제중심 대처방식 영역 21문항, 정서중심 대처방식 영역 24문항의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커트 척도는 '사용하지 않음'(1점)~'아주 많이 사용'(4점)까지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Kim[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문제중심 대처방식 영역 .88, 정서중심 대처방식 영역 .7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문제중심 대처방식 영역 .91, 정서중심 대처방식 영역 .82였다.

3)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3]가 개발하고 Jun[14]이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문항은 역

채점 처리하였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당시 Cronbach's α 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6으로 나타났다.

4) 자살생각 척도

Reynolds[15]의 자살생각 척도를 Lee[6]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7문항으로 5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총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5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자살생각 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분산분석(ANOVA) 및 Scheffé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생활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Baron과 Kenny[16]가 제시한 매개효과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정규성 검토로[17]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2 미만이었음을 확인하였고(왜도 최대값 .86, 첨도 최대값 1.33), 회귀모형 검증은 회귀분석 전의 사전검증으로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확대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검사함으로써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확인하였고 자기상관을 검토하는 통계량으로 Durbin-Watson 지수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Baron과 Kenny[16]가 제시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1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과의 회귀분석, 2단계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회귀분석, 그리고 3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모두 종속변인과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이 2단계 회귀분석보다 3단계 회귀분석에서 반드시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여학생은 183명(92.9%), 남학생은 14명(7.1%)이었으며 1학년 60명(30.5%), 2학년 66명(33.5%), 3학년 71명(36.0%) 순이었다. 종교는 종교없음 109명(55.3%), 기독교 49명(24.9%) 불교 28명(14.2%), 천주교 11명(5.6%) 순이었으며 거주형태는 자기 집 100명(50.8%), 기숙사 73명(37.1%), 기타 24명(12.1%) 순이었다. 가정 월평균 수입은 200~500만원 미만 123명(62.5%), 500만원 이상 42명(21.3%), 200만원 이하 32명(16.2%) 순이었고 월평균 용돈은 30만원 이상 108명(54.8%)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67명(34.0%), 10만원 미만 22명(11.2%) 순이었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보통 109명(55.3%), 불만족 66명(22.5%), 만족 26명(13.2%) 순이었다. 평소 자살생각 횟수는 '전혀 없음' 128명(65.0%), '1년에 한 번' 25명(12.7%), '한 달에 한 번' 19명(9.6%), '6개월에 한 번' 14명(7.1%)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및 자살생각

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및 자살생각의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생활 스트레스 평균평점은 5점 척도의 2.4점이었다. 하위영역인 당면과제 스트레스는 평균평점 2.9점이었으며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평균평점 1.7점이었다. 당면과제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원인별 문제로 학업문제가 평균평점 3.7점으로 가장 높았고, 취업 3.0점, 가치관 2.7점, 경제 2.4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생활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원인별 문제의 평균평점은 교수와의 관계가 가장 높았고(2.0점), 그 다음으로 가족(1.7점), 이성친구(1.6점), 동성친구(1.5점) 순이었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평균평점은 4점 척도의 2.3점이었다. 하위영역인 문제중심 대처방식은 2.3점이었었고, 정서중심 대처방식은 2.2점이었다. 자아존중감의 평균평점은 5점 척도의 3.6점이었으며, 자살생각의 평균평점은 5점 척도의 1.7점이었다.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자살생각 차이비교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9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range:18~43)	20.9±2.83
Gender	Male	14 (7.1)
	Female	183 (92.9)
Year	Year 1	60 (30.5)
	Year 2	66 (33.5)
	Year 3	71 (36.0)
Religion	Christianity	49 (24.9)
	Catholic	11 (5.6)
	Buddhism	28 (14.2)
	None	109 (55.3)
Type of residence	Own home	100 (50.8)
	Dormitory	73 (37.1)
	Others	24 (12.1)
Family income (10,000 won/month)	> 500	42 (21.3)
	200~500	123 (62.5)
	< 200	32 (16.2)
Allowance (10,000 won/month)	> 30	108 (54.8)
	10~30	67 (34.0)
	< 10	22 (11.2)
Academic achievement (subjectively)	High	20 (10.2)
	Middle	131 (66.4)
	Low	46 (23.4)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Satisfied	26 (13.2)
	Moderate	109 (55.3)
	Dissatisfied	62 (31.5)
Number of suicidal ideation	Once a week	11 (5.6)
	Once a month	19 (9.6)
	Once in six months	14 (7.1)
	Once a year	25 (12.7)
	None	128 (65.0)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평소성적, 학교생활 만족도, 평소 자살생각 횟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평소성적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는 평소성적이 '하' 집단이 '상' 집단보다 생활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고($F=4.55, p<.05$), 평소성적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평소성적이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였으며($F=3.68, p<.05$), 평소성적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평소성적이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고($F=11.48, p<.001$), 평소성적에 따른 자살생각은 평소성적이 '하' 집단이 '상', '중' 집단보다 자살생각이 높았다($F=10.87, p<.001$).

Table 2. Mean Scores of Life Stress, Stress Coping Type, Self-Esteem Suicidal Ideation

(N=197)

Variables (number of items)	M [†] ±SD	Min [†]	Max [†]	Mean score for items	Possible range of item score
Life stress (50)	122.08 (29.37)	50	195	2.44	1~5
Life stress related to tasks (27)	80.94 (19.30)	27	129	2.99	
Study (7)	25.95 (5.85)	7	53	3.70	
Economy (7)	17.16 (7.31)	7	35	2.45	
Future (8)	24.06 (7.10)	8	38	3.00	
Value (5)	13.75 (5.25)	5	25	2.75	
Life stress related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 (23)	41.13 (14.07)	23	85	1.78	
Friend (5)	7.90 (3.77)	5	23	1.58	
Lover (6)	10.04 (4.65)	6	30	1.67	
Family (6)	10.63 (5.11)	6	29	1.77	
Faculty (6)	12.54 (5.54)	6	30	2.09	
Stress coping type (45)	103.63 (17.84)	51	176	2.36	1~4
Problem-focused coping (21)	49.87 (10.56)	22	84	2.37	
Emotion-focused coping (24)	53.76 (9.47)	26	92	2.24	
Self-esteem (10)	36.29 (7.24)	10	50	3.62	1~5
Suicidal Ideation (17)	30.36 (14.66)	17	85	1.78	1~5

[†] Total score.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는 학교생활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생활 스트레스가 높았고($F=7.86, p<.01$),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했다($F=3.25, p<.05$).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고($F=5.03, p<.01$),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자살생각은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보통이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자살생각이 높았다($F=4.47, p<.05$).

평소 자살생각 횟수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을 ‘일주일에 한번’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나머지 집단보다 생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F=14.24, p<.001$), 평소 자살생각 횟수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자살생각을 ‘전혀 안 한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나머지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F=10.75, p<.001$). 평소 자살생각 횟수에 따른 자살생각은 자살생각 횟수가 ‘일주일에 한번’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나머지 집단보다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살생각을 ‘전혀 안 한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한 달에 한번’,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한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자살생각이 낮게 나타났다($F=41.59, p<.001$).

4. 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

자살생각은 당면과제 스트레스($r=.505, p<.01$), 대인관계 스트레스($r=.446, p<.01$), 정서중심 대처방식($r=.207, p<.01$)과 정적인 상관이 있고, 자아존중감($r=-.575, p<.001$)과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중심 대처방식은 자살생각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면과제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정서중심 대처방식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각각 높아짐을 의미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문제중심 대처방식($r=.245, p<.01$)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당면과제 스트레스($r=-.557, p<.01$), 대인관계 스트레스($r=-.294, p<.01$), 정서중심 대처방식($r=-.163, p<.05$)과는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중심 대처방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당면과제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정서중심 대처방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각각 낮아짐을 의미한다.

정서중심 대처방식은 당면과제 스트레스($r=.151, p<.05$), 대인관계 스트레스($r=.187, p<.01$), 문제중심 대처방식($r=.585, p<.01$)과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이는 당면과제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문제중심 대처방식이 높을수록 정서중심 대처방식이 각각 높아짐을 의미한다.

Table 3. Differences in Suicidal Ide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97)

Characteristics	Categories	LS		SCT		SE		SI	
		M±SD	t or F (Scheffé)	M±SD	t or F (Scheffé)	M±SD	t or F (Scheffé)	M±SD	t or F (Scheffé)
Gender	Male	2.36±0.69	1.372	2.44±0.37	0.81	3.03±0.25	2.02	1.82±1.01	2.35
	Female	2.44±0.58		2.35±0.40		3.05±0.41		1.78±0.85	
Year	Year 1	2.35±0.58	1.71	2.27±0.47	1.91	3.65±0.73	3.02	1.66±0.76	0.89
	Year 2	2.50±0.54		2.40±0.38		3.46±0.72		1.84±0.91	
	Year 3	2.48±0.61		2.39±0.36		3.76±0.69		1.83±0.89	
Religion	Christianity	2.34±0.56	1.32	2.41±0.31	1.39	3.81±0.78	1.58	1.63±0.70	1.27
	Catholic	2.71±0.75		2.46±0.40		3.54±0.81		2.13±1.00	
	Buddhism	2.40±0.67		2.42±0.42		3.67±0.57		1.72±0.94	
	None	2.46±0.55		2.30±0.43		3.54±0.71		1.83±0.88	
Type of residence	Own home	2.38±0.60	1.39	2.34±0.37	1.19	3.69±0.71	0.81	1.75±0.81	2.09
	Dormitory	2.46±0.54		2.34±0.45		3.57±0.63		1.72±0.74	
	Other	2.61±0.64		2.48±0.37		3.52±1.00		2.12±1.27	
Family income (10,000 won/ month)	> 500	2.35±0.57	0.65	2.33±0.46	0.11	3.72±0.76	2.38	1.80±0.97	1.08
	200~500	2.46±0.59		2.37±0.37		3.66±0.66		1.72±0.79	
	< 200	2.48±0.58		2.35±0.45		3.38±0.83		1.97±0.96	
Allowance (10,000 won/ month)	> 30	2.41±0.74	0.08	2.46±0.39	1.37	3.76±0.73	1.62	1.77±0.87	0.43
	10~30	2.46±0.61		2.30±0.45		3.50±0.70		1.75±0.83	
	< 10	2.43±0.53		2.37±0.37		3.67±0.72		1.94±0.93	
Academic performance	High	2.20±0.67	4.55*	2.57±0.32	3.68*	4.05±0.56	11.48***	1.29±0.45	10.87***
	Middle	2.40±0.55	c > a	2.35±0.39	a > c	3.70±0.65	a > c,	1.70±0.79	c > a, b
	Low	2.63±0.59		2.28±0.43		3.24±0.81	b > c	2.22±1.01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Satisfied	2.17±0.49	7.86**	2.53±0.49	3.25*	3.95±0.74	5.03**	1.43±0.76	4.47*
	Moderate	2.38±0.52	c > a, b	2.35±0.37	a > c	3.65±0.70	a > c	1.74±0.80	b > a
	Dissatisfied	2.65±0.61		2.29±0.39		3.44±0.70		2.00±0.94	
Number of suicidal ideation	Once a week	3.39±0.38	14.24***	2.48±0.41	1.45	3.01±1.01	10.75***	3.31±0.84	41.59***
	Once a month	2.69±0.47	a > b, c, d, e	2.48±0.31		3.17±0.61	e > a, b, c, d	2.66±0.79	a > b, c, d, e
	Once in six months	2.71±0.49		2.28±0.31		3.12±0.67		2.34±0.68	b > e
	Once a year	2.48±0.43		2.23±0.40		3.42±0.61		2.14±0.85	c > e
	None	2.28±0.55		2.36±0.42		3.84±0.64		1.39±0.53	d > e

* $p < .05$, ** $p < .01$, *** $p < .001$; LS=Life stress; SCT=Stress coping type; SE=Self-esteem; SI=Suicidal ideation.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당면과제 스트레스($r=.537, p<.01$)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는 당면과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아짐을 의미한다<Table 4>.

5.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생활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당면과제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영역인 정서중심 대처방식과 문제중심 대처방식 그리고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자살생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Baron과

Kenny[16]의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서중심 대처방식이 당면과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당면과제 스트레스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각각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1) 당면과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정서중심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VIF 값은 1.02, Durbin-Watson 지수는 2.01이었고, 1단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인 당면과제 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인 정서중심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151, p<.05$).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당면과

Table 4. Correlation among Stress, Stress coping type, Self-esteem and Suicidal Ideation

(N=197)

Variables	Life stress		Stress coping type		Self-esteem	Suicidal ideation
	LST	LSIR	PFC	EFC		
	r (p)	r (p)	r (p)	r (p)		
Life stress						
LST	1					
LSIR	.537**	1				
Stress coping type						
PFC	-.104	.056	1			
EFC	.151*	.187**	.585**	1		
Self-esteem	-.557**	-.294**	.245**	-.163*	1	
Suicidal ideation	.505**	.446**	-.086	.207**	-.575***	1

* $p < .05$, ** $p < .01$, *** $p < .001$; LST=Life stress related to tasks; LSIR=Life stress related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 PFC=Problem-focused coping; EFC=Emotion-focused coping.

Table 5. Mediating Effect of between $X^{\dagger}$ and $Y^{\ddagger}$

Variables	Steps		β	R^2	F
LST ($X^{\dagger}$)	Step 1	$X \rightarrow M$	.151*	.023	4.565*
Stress coping type EFC ($M^{\S}$)	Step 2	$X \rightarrow Y$	.505***	.256	66.925***
Suicidal ideation ($Y^{\ddagger}$)	Step 3	$X \rightarrow Y$	.485***	.273	36.413***
		$M \rightarrow Y$	.134**		
LST ($X^{\dagger}$)	Step 1	$X \rightarrow M$	-.557***	.310	87.813***
Self-esteem ($M^{\S}$)	Step 2	$X \rightarrow Y$	.505***	.256	66.925***
Suicidal ideation ($Y^{\ddagger}$)	Step 3	$X \rightarrow Y$	.268***	.381	59.610***
		$M \rightarrow Y$	-.426***		
LSIR ($X^{\dagger}$)	Step 1	$X \rightarrow M$	-.294***	.087	18.472***
Self-esteem ($M^{\S}$)	Step 2	$X \rightarrow Y$	.446***	.195	48.553***
Suicidal ideation ($Y^{\ddagger}$)	Step 3	$X \rightarrow Y$	.303***	.415	66.869***
		$M \rightarrow Y$	-.486***		

* $p < .05$; ** $p < .01$; *** $p < .001$; $\dagger$ Independent variable, $\ddagger$ Dependent variable, $\S$ Mediating variable;

LST=Life stress related to tasks; EFC=Emotion-focused coping; LSIR=Life stress related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

제 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505, p < .001$).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당면과제 스트레스와 정서중심 대처방식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살생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당면과제 스트레스와 정서중심 대처방식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고($\beta = .485, p < .001$; $\beta = .134, p < .01$),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이 2단계 회귀분석보다 3단계 회귀분석에서 감소되었다. 자살생각에 대한 설명력을 보면 당면과제 스트레스 단독으로는 25.6% ($p < .001$)이었으며, 정서중심 대처방식이 투입되었을 때는 27.3% ($p < .001$)로 늘어, 정서중심 대처방식이 개입됨으로써 자살생각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아졌다. 따라서 당면과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정서중심 대처방식의 매개

효과는 유의한 부분매개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당면과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VIF 1.45, Durbin-Watson 지수 2.08이었으며, 당면과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정을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 1단계에서 당면과제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 = -.557, p < .001$), 2단계에서 당면과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505, p < .001$). 3단계에서 당면과제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살생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당면과제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beta = .268, p < .001$; $\beta = -.426, p < .001$) 종속변인에 대

한 독립변인의 영향이 2단계 회귀분석보다 3단계 회귀분석에서 감소되었다. 자살생각에 대한 설명력을 보면 당면과제 스트레스 단독으로는 25.6% ($p < .001$), 자아존중감이 투입되었을 때는 38.1% ($p < .001$)로 늘어, 자아존중감이 개입됨으로써 자살생각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아졌다. 따라서 당면과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유의한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3)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VIF 1.09, Durbin-Watson 지수 2.07이었으며, 1단계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294, p < .001$), 독립변인인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자살생각에 영향력을 검증한 2단계 회귀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446, p < .001$).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살생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beta = .303, p < .001$; $\beta = -.486, p < .001$).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이 2단계 회귀분석보다 3단계 회귀분석에서 감소되었으며, 자살생각에 대한 설명력을 보면 대인관계 스트레스 단독으로는 19.5% ($p < .001$), 자아존중감이 투입되었을 때는 41.5% ($p < .001$)로 늘어, 자아존중감이 개입됨으로써 자살생각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아졌다. 따라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유의한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일 대학교의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자살생각 등을 파악하고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경우 생활 스트레스 하위영역 중 대인관계 스트레스 보다는 당면과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꼈으며 이는 일반 대학생[8]과 간호대학생[18]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결과가 일치한다. 당면과제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원인별 문제로 학업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18] 결과와 일치한다.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초

래하는 원인별 문제로 교수와의 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가족관계가 가장 높다고 한 선행연구[6,18]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은 학사과정동안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야 하며 더구나 학생신분으로서 다양한 병원환경에 적응하여 실습해야 하므로 타 대학생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19]. 학교 생활과 임상실습의 적응정도는 학과성적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곧 졸업 후 병원 취업과도 연관이 있게 되므로 이러한 영역이 스트레스 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 선행연구[6]에서 청소년 전기에는 친구관계, 가족관계에 더 큰 심리적 영향을 받지만, 청소년 후기에는 대인관계보다 본인이 처한 당면과제, 특히 학업이나 장래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하위영역 중 정서중심 대처방식보다 문제중심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Kim[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Lee[7]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문제중심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중심 대처방식과 자살생각 간에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이는 선행연구[8]에서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인 정서중심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자살생각은 각각 높아진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중심 대처방식보다 문제중심 대처방식이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효율적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평균평점 3.62점으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8]의 연구결과인 평균평점 3.3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20]에서 자아존중감이 취업 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났으며 간호대학생들의 취업전망이 비교적 높은 것과 관련있다고 한 것과 일치된 결과이다. 자아존중감과 자살생각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8] 결과와 유사한 내용이며 또한 선행연구[21]에서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간의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한 것과 일치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참여대상자들인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은 평균평점 1.7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8]에서 나타난 결과인 1.9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선행연구[22]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7,22,23] 및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8]와 일치된 결과였다. 선행연구[6]에서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결과와 일치된 내용이다. Lee[7]의 연구에서 남·녀 대학생의 정서중심 대처방식은 자살생각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내용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극적 정서중심 대처방식보다는 적극적인 방식인 문제중심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자살생각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문제중심 대처방식을 사용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자살생각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 생활 스트레스 하위영역 중 당면과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정서중심 대처방식,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었고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는데, 이는 전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24]와 일치된 결과를 나타냈다.

당면과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정서중심 대처방식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으며 자살생각에 대한 설명력이 당면과제 스트레스 단독으로는 25.6%였고, 정서중심 대처방식이 투입되었을 때는 27.3%로 늘어나 정서중심 대처방식이 개입됨으로써 자살생각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졌다. 이것은 당면과제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 받은 정서중심 대처방식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서중심 대처방식은 당면과제 스트레스와 함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당면과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살생각에 대한 설명력이 당면과제 스트레스 단독으로는 25.6%였고 자아존중감이 투입되면 38.1%로 늘어나 자아존중감이 투입됨으로써 자살생각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당면과제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은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은 당면과제 스트레스와 함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 단독으로는 19.5%, 자아존중감이 투입되었을 때는 41.5%로 자살생각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졌다.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받은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함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간호학과 1, 2,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분산분석,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해보면 간호학과 학생들의 자살생각은 당면과제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정서중심 대처방식과는 정적상관, 자아존중감과는 부적상관이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법인 문제중심 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면과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정서중심 대처방식이 부분매개효과가 있고, 자아존중감은 당면과제 스트레스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당면과제 스트레스 상황시 정서중심 대처방식보다 문제중심 대처방식을 사용하고, 평소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며 향후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 감소를 위해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스트레스 대처기법 및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중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본 연구는 일 대학에 국한한 것이므로 좀 더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선택범위의 확장이 요구된다.

둘째,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기법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포함하는 중재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자살생각 감소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매개효과로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만을 연구하였으므로 다른 심리, 사회적 변인을 포함한 다양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Chon KK, Kim KH, Yi JS.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0;5(2):316-335.
2. Wang MC, Lightsey OR, Pietruszka T, Uruk AC, Wells AG.

- Purpose in life and reasons for living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coping, and suicidal behavior.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2007;2(3):195-204. <http://dx.doi.org/10.1080/17439760701228920>
3. Pulido-Martos M, Augusto-Landa JM, Lopez-Zafra E. Sources of stress in nursing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of quantitative studies.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2011;59(1):15-25. <http://dx.doi.org/10.1111/j.1466-7657.2011.00939.x>
4. Jung MH, Shin MA.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6;12(2):170-177.
5. Jung HH, Sung HA. The verification of structural relationship model of suicidal ideation to stress, coping styles, perfectionism, depression and impulsivi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2008;20(4):1149-1171.
6. Lee JY. A study on the psychosocial factor influencing the suicide ideation of university student [master's thesis]. Gongju: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07. p. 1-80.
7. Lee YJ. An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on suicidal ideation [master's thesis]. Busan: Dong-A University; 2010. p. 1-62.
8. Park SW. The effects of campus life stress, stress coping type, self-esteem and Maladjustment Perfectionism on suicide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Gimhae: Inje University; 2010. p. 1-60.
9. Bae JS. The influence of the laughing programs on self-esteem and stress coping behavior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015;28(1):22-30. <http://dx.doi.org/10.15434/kssh.2015.28.1.22>
10. Chon KK, Kim KH. Development of th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A control theory approach.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91;10(1):137-158.
11. Folkman S, Lazarus RS.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5;48(1):150-170. <http://dx.doi.org/10.1037/0022-3514.48.1.150>
12. Kim YJ. The effects of self-efficacy on stress-coping methods [master's thesis]. Daegu: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00. p. 1-48.
13.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Cited by Jun BJ.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974;11(1):107-130.
14. Jun BJ.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974;11(1):107-130.
15. Reynolds WM.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88. Cited by Lee JY. A study on the psychosocial factor influencing the suicide ideation of university student [master's thesis]. Gongju: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07. p. 1-80.
16. Baron RM, Kenny DA. The me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o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6;51(6):1173-1182. <http://dx.doi.org/10.1037/0022-3514.51.6.1173>
17. Lee IH. Easyflow regression analysis. Seoul: Hannarae Publishing Co.; 2014. p. 73-78.
18. Shin MK, Yi HR, Won JS. Influence of life stress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3;20(4): 419-428. <http://dx.doi.org/10.7739/jkafn.2013.20.4.419>
19. Jeong SH, Park SH. Relationship among stress, depression, and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2013;16(1):47-54. <http://dx.doi.org/10.7587/kjrehn.2013.47>
20. Choi SH, Lee HY. Affecting factors in unemployment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Focused on physical sympyoms, depression, anxiety and self-esteem.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3;13(12):808-816. <http://dx.doi.org/10.5392/jkca.2013.13.12.808>
21. Kim JY, Lee KH. (2015). Effect of adolescents' abuse experience on suicidal ideation: Focused on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on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5;45(5):752-760. <http://dx.doi.org/10.4040/jkan.2015.45.5.752>
22. Park DS. Effects of life stress and depression of health college students on their suicidal ideation: Control effec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3;14(2):728-736. <http://dx.doi.org/10.5762/kais.2013.14.2.728>
23. Baek SS, Ha EH, Ryo EN, Song MS. Effects of life stress and depression in undergraduates on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2012;18(4):157-163. <http://dx.doi.org/10.4094/jkachn.2012.18.4.157>
24. Yun SJ.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al rearing attitud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in the college student stress and suicide ideation [dissertation]. Yongin: Dankook University; 2014. p. 1-94.